ECONOMIC FOCUS

2026. 3. 6.

MACRO팀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trategist
juhn21@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6년 양회 개막 시사점

In-line; 내수 확대, 산업 고도화에 집중

- 양회 개막: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 올해 중국 성장 전망(4.6%) 유지
- 핵심 이슈: 4.5~5.0% 성장률 목표, 온건한 경기 부양과 적극적인 구조 개혁 전망
- 금융시장 시사점: 정책 집행 개시, 향후 미중 협상 주목

정부 공작 보고 주요 내용: 산업 고도화 등 구조 전환에 집중

- 이번 양회의 정부 공작 보고는 당사 전망에 부합했다. '26년 성장 목표는 4.5~5.0%로 제시되었으며, 재정 및 통화 정책과 중점 업무에 대한 내용은 지난 경제공작회의와 비슷했다. 경제 성장 목표 하향에도 재정 적자율(GDP 대비 4%), 특별 채권 발행 규모(1.3조 위안) 등 지출 강도는 '25년과 같았고, 핵심 업무로는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계속 강조했다. 또한, '반내권화'(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무리하게 성장을 유지하기보다 산업 고도화, 소비 확대, 구조조정 등 구조 전환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감안하여 올해 성장 전망(4.6%)을 유지한다.

금융시장 시사점: 양회 이후 안정세 회복 전망

- 양회 이후 중국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인 정책 집행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월 증시의 핵심변수는 정책 모멘텀의 회복과 유동성 유입이다. 중국 증시는 정책 모멘텀 부재, 이란 사태 발발, AI 버블 논란의 영향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었으나 양회가 진행되면서 지수의 점진적인 회복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차이나 테크를 주목한다. 양회에서 공표될 15차 5개년 경제규획은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나 테크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첨단 제조, AI 부문 투자 확대 사이클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고 상반기 중 기술 진보를 의미하는 다양한 신모델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차이나 테크의 주가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26년 정부 공작 보고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항목	'25년	'26년
① 정책 목표	GDP 성장률	5.0% 내외	4.5~5.0%
	물가 상승률	2.0%	2.0%
	실업률	5.5%	5.5%
② 통화정책	기조	"적절히 완화적"	"적절히 완화적"
	유동성 공급	충분한 수준 유지	충분한 수준 유지
	금리/지준율	적절한 시기에 인하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③ 재정정책	기조	"보다 적극적"	"보다 적극적"
	재정 적자율(GDP 대비)	4.0%	4.0%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4.4조 위안	4.4조 위안
④ 중점 업무	업무 우선 순위	내수 → 산업 → 과학기술	내수 → 산업 → 과학기술

자료: '26년 국무원 정부공작보고, 삼성증권 정리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26년 양회 정부 공작 보고 주요 내용

경제 성장 목표 및 재정지출 강도 예상 부합; 산업 고도화 등 구조 전환에 집중

- 3월 5일, 중국 양회에서 '26년 정부 업무 보고가 발표되었다. 당사 전망대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4.5~5.0%로 제시되었으며, 재정 및 통화 정책과 중점 업무에 대한 내용도 예상에 부합했다. 경제 성장 목표 하향에도 정책 강도는 '25년 대비 크게 강화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민생 강화, 산업 고도화, "반내권화(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구조 전환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정책 강도가 다소 부족했음에도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현재 금융시장의 '26년 중국 성장 전망이 4.6%(Bloomberg 기준)로 목표 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정부 공작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6년 경제 성장 목표가 4.5~5.0%로 하향 조정되었다. '23년에 5.5%에서 5.0%로 하향된 이후 3년 만의 변화이다.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낮춘 주된 이유는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수출은 추가 확대 여지가 제한적이고, 고정자산 투자나 부동산을 통한 성장도 정부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다. 아울러, 리창 총리는 구조 개선, 리스크 방지, 개혁 촉진을 위해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목표 하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경제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에 무게를 두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재정과 통화 정책 강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26년 재정 적자 목표는 GDP 대비 4%,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4.4조 위안, 초장기 특별 국채는 1.3조 위안으로 유지되면서 당사 예상에 부합했다. 반면,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 국채는 3,000억 위안으로 '25년 대비 2,000억 위안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26년 정부 채권 총 발행 규모는 '25년 대비 200억 위안 증가에 그쳤으며, GDP 대비로는 지난 4분기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 확대(5,000억 위안 추가)를 포함해야 '25년과 비슷했다. 이는 중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2025년 기준, IMF)하고 재정 수입이 둔화하면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다. 또한, 성장 목표가 하향된 점과 대외 리스크가 축소된 점도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낮췄다.

통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중국 정부는 "적절히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갔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총사회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을 경제 성장과 부합하는 속도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 완화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융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변경하면서 정책금리가 크게 인하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의 예대 마진이 역사적 수준까지 축소되면서 정책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년 정부 채권 순발행 규모

구분(조 위안)	2024년	2025년	2026년	'26년 증가 규모
일반 국채	4.06	5.66	5.89	0.23
- 중점 인프라 건설	0.7	0.735	0.755	0.02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3.9	4.4	4.4	0
LGFV 채무차환 채권	2.0	2.0	2.0	0
대형은행 자본확충 채권	-	0.5	0.3	-0.2
특별 국채	1.0	1.3	1.3	0
- 이구환신	0.3	0.3	0.25	-0.05
계	10.96	13.86	13.89	0.03

자료: '26년 국무원 정부 공작 보고,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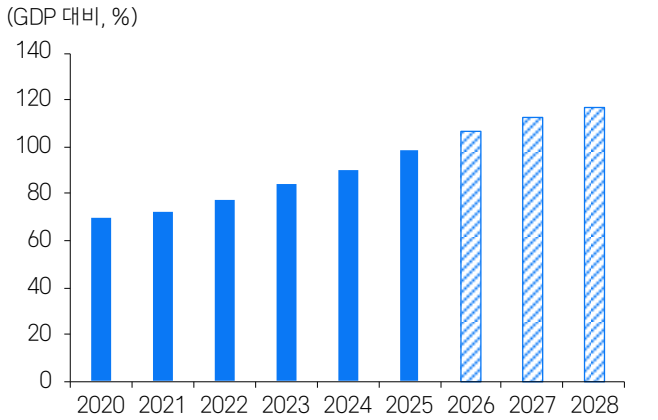
셋째, 중점 업무로 내수(투자와 소비) 확대가 산업 고도화보다 먼저 제시되었으나, 사실상 산업 고도화가 최우선 순위였다. 내수 확대는 재차 첫 번째 중점 업무로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책 중심은 여전히 소비보다 투자(공급) 측면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한다. 이구환신 정책에 할애된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는 2,500억 위안으로 지난해의 3,000억보다 적었고, 대출 이자 보조, 융자 담보 등을 위해 1,000억 위안의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책의 연장선에 가까웠다. 반면, 투자의 경우 중앙 예산 중 투자 자금은 7,550억 위안으로 200억 위안 증가했고, 초장기 특별 국채 8,000억 위안을 중점 안보 및 전략 건설(인프라)에 활용할 계획이며, 설비 업그레이드에도 2,000억 위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와 관련하여 가계 소득 확대 계획을 제정하고 임금과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 구체적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추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점 업무로 언급된 산업 고도화에 대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신흥 산업으로 반도체, 항공우주, 제약바이오, 저공경제(드론)을 지목했으며, 육성해야 할 미래산업으로는 차세대 에너지, 양자 기술, 임바디드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을 제시했다. 또한, 'AI+'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AI의 상업화 응용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핵심 업무는 여전히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이며, 소비와 가계보다는 투자와 기업에 무게를 놓은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지도부는 전략 산업과 핵심 기술 확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기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육성이 더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15차 5개년 경제 규획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첫 번째 중점 업무가 산업 고도화(질적 발전), 두 번째가 국내 대순환 강화(내수 확대)였다. 또한, 올해 중점 업무 중 과학기술 자립이 세 번째로 언급되었다.

넷째, 구조조정('반내권화') 지속을 시사했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반내권화'가 이번 양회에서도 등장했으며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지방정부의 경제 부양 행위를 규제하고, 독점 방지, 생산능력 조절, 표준 도입, 가격 관련 법 시행 등으로 '내권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중국의 생산 조정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구조조정 강도가 추가 강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편, 부동산과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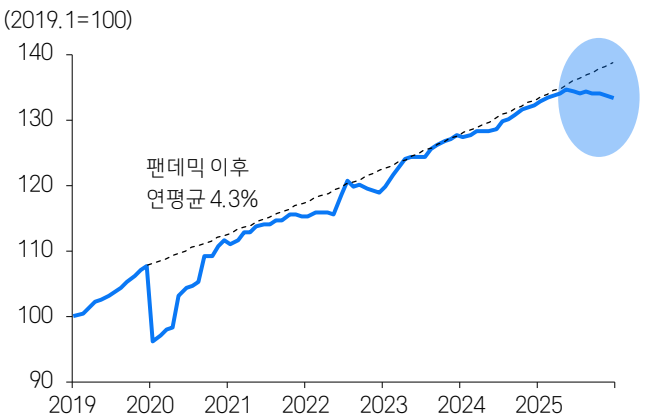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성장 속도 둔화에 내수 확대, 산업 고도화, 구조조정 등 경제 구조 전환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이나, 부동산 침체, 공급 과잉(디플레이션 압력), 사회보장 제도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예상과 부합한 정책 내용을 감안하여 올해 중국 성장 전망을 4.6%로 유지한다.

중국 정부 부채 증가세 지속



참고: Augumented 기준, '26년 이후는 IMF 전망
자료: IMF(2026), 삼성증권

중국의 소비는 기존 추세를 하회하는 중



참고: 전월 대비 계절 조정값으로 추정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참고] 정부 공작 보고 요약

① 중국 경제 성장 목표 4.5~5.0%로 하향 조정

今年发展主要预期目标是：**经济增长4.5% - 5%**，在实际工作中努力争取更好结果；城镇调查失业率5.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以上；居民消费价格涨幅2%左右；居民收入增长和经济增长同步；国际收支基本平衡；粮食产量1.4万亿斤左右；单位国内生产总值二氧化碳排放降低3.8%左右… 提出这些预期目标，**主要考虑是开局之年为调结构、防风险、促改革留出空间**，为后期更好发展打牢基础。

올해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제는 4.5-5% 성장시키며, 실제 업무 중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실업률 5.5% 내외, 신규 고용 1,200만 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한다. 또한,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소득 증가, 국제수지 균형 유지, 곡물 생산량 약 7억 톤 달성,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3.8% 감축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는 구조조정·리스크관리·개혁 촉진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② 재정 및 통화정책은 기존 기조 유지; 재정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继续实施更加积极的财政政策。**今年赤字率拟按4%左右安排**，赤字规模5.89万亿元、比上年增加2300亿元。一般公共预算支出规模将首次达到30万亿元、比上年增加约1.27万亿元… 今年财政支出继续保持相当规模，要持续用力优化支出结构，更加**注重支持提振消费、投资于人、保障民生等方面**，提高财政资金使用效益… 继续实施适度宽松的货币政策。把促进经济稳定增长、物价合理回升作为货币政策的重要考量，**灵活高效运用降准降息等多种政策工具**，保持流动性充裕，使社会融资规模、货币供应量增长同经济增长、价格总水平预期目标相匹配… **降低融资中间费用，促进社会综合融资成本低位运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 적자율은 4% 내외,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300억 위안 증가한 5.89조 위안 수준이다. 재정지출은 소비 진작·인적자본 투자·민생 보전에 보다 집중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한다. 경제 안정과 물가 회복을 고려하여 정책 금리, 지준율 등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금융 중개 비용을 낮춰 사회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③ 소비보다 투자 정책에 무게; 이구환신 정책 규모 2,500억 위안으로 축소

深入实施提振消费专项行动… 制定实施城乡居民增收计划，在促进低收入群体增收、增加居民财产性收入、完善薪酬和社保制度等方面推出一批务实举措… **安排超长期特别国债2500亿元支持消费品以旧换新**，优化政策实施机制。**设立1000亿元财政金融协同促内需专项资金**… 今年拟安排中央预算内投资7550亿元，**安排8000亿元超长期特别国债资金用于"两重"建设**…单列并提高用于项目建设的地方政府专项债券额度… 发行新型政策性金融工具8000亿元，带动更多社会资本参与投资。

소비 증진을 위한 특별 행동을 실시한다….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실행한다. 2.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활용하여 이구환신을 확대하고 1,000억 위안 규모의 소비 촉진 특별기금을 신설한다. '양중(两重)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8,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배정하고, 정책 금융을 확대해 공공 및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④ '반내권화' 재차 강조; 지방정부의 투자 유지 행위 규제

纵深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 **规范地方政府经济促进行为**… 加强反垄断、反不正当竞争，强化公平竞争审查刚性约束… **深入整治"内卷式"竞争**，营造良好市场生态。。

전국 통합 시장 구축과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를 규범화하고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통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내권 경쟁"을 방지한다.

금융시장 전망

주식시장 안정화 예상

- 양회 이후 중국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 모멘텀의 회복과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월 증시의 핵심변수는 정책 모멘텀의 회복과 유동성 유입이다. 중국 증시는 정책 모멘텀 부재, 이란 사태 발발, AI 버블 논란의 영향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었으나 양회가 진행되면서 지수의 점진적인 회복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 **'26년 양회의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1) 정량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와 2) 중장기 전략(15.5 산업 정책)이다. 경제성장률 타깃은 예상대로 4.5~5.0%로 지난해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선언과 이미 완료된 지방정부 양회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 중국의 정책 조합은 『온건한 경기 부양과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다. 지난해보다 경기 부양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나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과 소비부양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인민은행은 적절한 통화완화 기조 유지와 지준율 및 금리 인하 등의 유동성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정책은 적극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재정 적자비율은 GDP 대비 4.0%가 유지되고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규모는 4.5조 위안 이상이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신형 인프라(에너지망, 첨단 컴퓨팅 인프라) 증액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진한 부동산 지표와 수요를 감안할 때 상반기 내 정책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구환신 정책은 소비의 방화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이구환신 프로그램은 지원범위와 한도를 조정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올해 양회에서 주목되는 정책 모멘텀은 15.5 경제규획과 산업정책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산업화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14.5~16.5 규획기간('21~35년) 동안 산업 고도화와 인당 GDP 2만~2.5만 달러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5년의 시간이 중국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의 골든 타임이다.

  중국이 1) 과거 부동산과 저부가가치 제조업, 구경제 공급 과잉을 구조조정하고 2) AI를 위시한 첨단 제조의 기술자립에 나서면서 속도감 있게 AI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조 2025가 선진국을 발빠르게 추격하는 Fast follower 전략이 기본이었다면 산업 고도화 2035(일명 제조 2035)는 AI 신산업 17개 부문 글로벌 표준화와 Physical AI, 자율주행 시장과 휴머노이드 시장 상용화 선점을 통해서 First mover를 지향할 것이다.

전인대 목표치와 실제치

(전년 대비, %)	목표치			실제치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GDP	5.0% 내외	5.0% 내외	5.0% 내외	5.2%	5.0%	5.0%
CPI	3	3	2	0.2%	0.2%	0.1
신규 고용 (만명)	1,200	1,200	1,200	1,244	1,256	1,267
실업률 (%)	5.5 내외	5.5 내외	5.5 내외	5.2	5.1	5.1
재정 적자 (GDP 대비, %)	3.0	3.0	4.0	3.9	6.5	?
특별 국채(조 위안)	-	1.0	1.8	-	1.0	1.8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조 위안)	3.8	3.9	4.4	3.96	4.02	4.61

자료: CEIC, 국무원 업무보고

- 또 하나의 변수는 미중 분쟁의 경과이다. [1]4월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태 발발 이후 미중 고위급 회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다음 주말 파리에서 진행되는 미-중 경제 수장 회담에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의 골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미중 분쟁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상반기 중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핵심 이익(경제 성장, One China)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트럼프 1기의 [2]1차 미중 무역 합의(Phase 1)가 기본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대량 수입 등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첨단 제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상대로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 데탕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스트레스로 작동되어 왔다. 지난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와 극단적인 치킨게임 시점의 트럼프 대통령 TACO 트레이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차이나 테크의 모멘텀 회복을 주목한다. 지난달 중국 테크 섹터는 정책 모멘텀 약화와 함께 AI 버블 논쟁으로 인해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다. AI 투자 수요에 대해서 가파른 반도체 가격상승과 비용증가로 인해 단기 Peak-ou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 양회에서 공표될 15차 5개년 경제규획은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나 테크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첨단 제조, AI 부문 투자 확대 사이클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고 상반기 중 기술 진보를 의미하는 다양한 신모델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차이나 테크의 주가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3월 양회 이벤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규획 추진 경과 및 전망

구분	규획	기간	경제 성장		Keyword 주요 내용
			연간 성장률(%)	GDP 규모(조달러)	
계획경제 실패	1차	'53~57년	9.4	0.04	• 소련 원조 경제,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 마련
	2차	'58~62년	(0.5)	0.05	• 대약진 운동, 산업생산 급진적 확대 실패
	3차	'66~70년	7.4	0.09	• 문화대혁명, 국방/안보 우선정책
	4차	'71~75년	5.9	0.16	• 국가/안보 중심정책 유지, 인프라 확대
	5차	'76~80년	7.8	0.2	• 성장주의 정책 채택, 개혁개방 준비
개혁개방 사이클 (산업화 초기)	6차	'81~85년	10.7	0.3	• 개혁개방, 시장경제 체제 본격적인 도입
	7차	'86~90년	8.0	0.36	• 거점지역 개발, 경제구조 개선
	8차	'91~95년	12.3	0.73	• 경제특구 확대/대외개방, 94년 환율 단일화
	9차	'96~00년	8.6	1.2	• 주롱치 국유기업 개혁/부동산 민영화
WTO 사이클 (산업화 중기)	10차	'01~05년	9.8	2.3	• WTO 가입, 서부대개발, 인프라 확충
	11차	'06~10년	11.3	6.1	• 부동산/제조 중심 성장, 친환경 에너지 강조
	12차	'11~15년	7.9	11.0	• 내수 확대, 서비스업 육성, 균형발전 도모
	13차	'16~20년	5.8	14.7	• 중산층 경제 도달, 미중 분쟁
고도화 사이클 (산업화 후기)	14차	'21~25년	5.4	19.2	• 팬데믹, 부동산 버블 붕괴
	15차	'26~30년	4.5	25.9	• 기술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16차	'31~35년	4.5	32.2	• 선진국 수준 산업 고도화/인당 GDP 2.5만달러

자료: 1953~2020년 UN, 2025년 이후 삼성증권 추정치

[1] '26 년 3.31~4.2 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17 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9 년 만의 본토 재회

[2] 미중 1 차 무역 합의: '20 년 1.15 일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1 단계 무역 협상 합의안 공식 서명. 주요내용은 1) 무역수지 조정, 2) 환율 조정, 3) 금융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되었던 지적재산권 강화와 기술이전 방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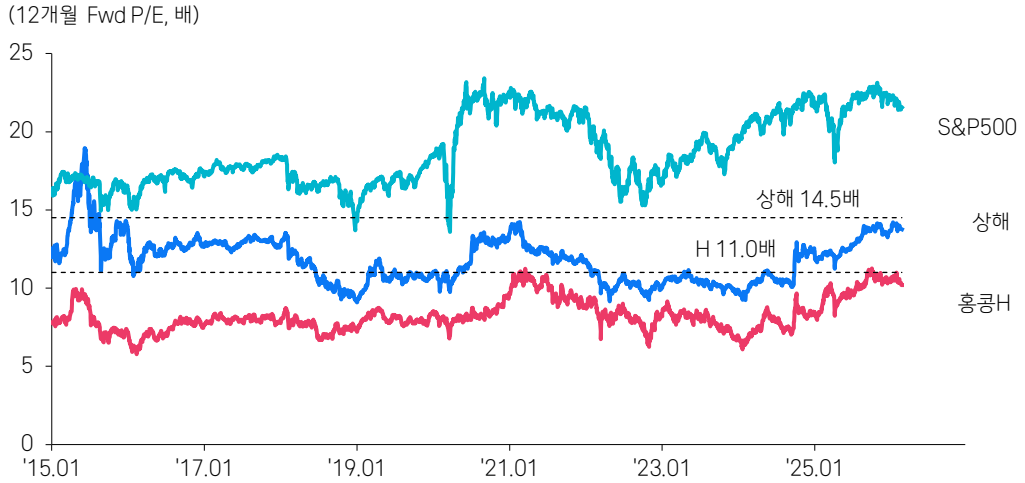
주식시장 점검

전인대 이후 주식시장 등락률

연도	전인대 기간, 개막일 (D)	D+1M	D+3M	D+6M	비고
2009	3월 5일 (D)~13일	8.9	24	28.8	GFC 부양 정책
2010	3월 5일~14일	4.2	-15.8	-12.4	GFC 부양 정책
2011	3월 5일~14일	-1	-9	-17.3	
2012	3월 5일~14일	-5.8	-5.4	-16.7	
2013	3월 5일~16일	-4.3	-2.4	-8.8	
2014	3월 5일~13일	0.3	-0.6	13.3	
2015	3월 5일~15일	18.9	54.6	-2.7	시장 개방+통화 완화
2016	3월 5일~13일	5.4	1.4	6	자본시장 안정화
2017	3월 5일~15일	1.1	-4.4	4.7	
2018	3월 5일~15일	-3.9	-4.4	-17	
2019	3월 5일~16일	6.3	-6.3	-2.2	통화 완화
2020	5월 21일~28일	3.5	17.9	17.8	팬데믹, 부양 정책
2021	3월 5일~11일	-0.5	2.6	2.3	
2022	3월 5일~11일	-2.7	-5.3	-5.1	
2023	3월 5일~13일	-0.3	-2.7	-5	
2024	3월 5일~11일	-1.1	-1.3	-11.3	온건한 부양 정책
2025	3월 5일~ 12일	0.2	1.3	14.1	온건한 부양 정책
평균		1.7	2.6	-0.7	

자료: Wind, 삼성증권

중국 주식시장, 장기 Bear market 종료



참고: '26년 3월 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